

10 2019
VOL.232

언론 사람



04 인터뷰 人+人

안상수 파주타이포그래피배곳
교장

08 세상사는 法

피의사실공표를 두고 벌어진
최근 논란에 대한 생각

12 이달의 시

하늘을 마시고
능금처럼 익어가는 가을날

14 아침을 여는 사람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
박남옥

CLOSE UP



가을이 좋아요

가을은 풍성하고 행복한 계절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 잣나무 숲에서 청서(청설모)의 모습이 보입니다.
청서들은 잣나무에서 잣을 빼먹으며 가을의 풍성함을 만끽합니다.
도처에 열매들이 널려 있어 겨우내 먹이로 저장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다람쥐과의 포유류인 청서는 호두나무 농가 등에 피해를 줘 요즘 시골에선 천덕꾸러기 신세입니다.
청설모(청서모:靑鼠毛)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옛날 문방사우 중 하나인 붓을 청서의 털로 만들어서 굳어진 표현이라고 합니다.
청서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네요.

CONTENTS

10 2019
VOL.232

- 02 CLOSE UP
가을이 좋아요
- 04 인터뷰 人+人
안상수 파주타이포그래피배곳 교장
- 06 손거울
안중필 & 이용마
- 08 세상사는 法
피의사실공표를 두고 벌어진
최근 논란에 대한 생각
- 10 트렌드, 트렌드, 트렌드!
주 52시간 근무제 1년,
회식은 좀 줄었습니까?
- 12 이달의 시
하늘을 마시고
능금처럼 익어가는 가을날
- 14 아침을 여는 사람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 박남옥
-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스노든
- 18 NEWS
위원회 뉴스
위원 동정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권오근 발행일 2019년 10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코비즈 T 02-2272-1400
표지 작품 AKaiser <Autumn Leaves>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평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 틀을 깨고 나온다*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 연설에서 대학 시절 타이포그래피의 아름다움에 매료됐던 경험을 말한다. 글자의 아름다움에 빠졌던 한 젊은이의 경험은, 오늘날 디지털 시대 속에서 우리를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로 녹아들었다.

세계 문자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글도 디지털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글꼴로 진화하고 있다.

한글의 네모 틀을 깨고 나온 안상수체는 우리 글꼴의 패러다임을 새로 정립한 혁신으로 꼽힌다.

언론사람은 한글날을 맞아 디자이너 안상수를 만나 한글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진행 남승균(홍보팀 팀장) 정리 이병연(홍보팀 에디터)



Q 2013년 '파주타이포그래피배곳'(PaTi·파티)을 설립하셨습니다. 배곳(학교)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A 배곳 파티는 디자인 대안 독립학교입니다. 올해로 7년 차가 되었는데, 최근 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어서 협약을 맺은 해외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4년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합해서 95명의 학생이 있는데, 학위는 없습니다. 학부는 한배곳, 대학원은 더배곳이라고 합니다. '배곳'은 '배우는 곳'이라는 뜻으로 주시경 선생님이 쓰시던 말이에요. 우리말의 개성과 생각을 드러내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Q 1985년 안상수체를 만드셨는데, 디자인 철학을 말씀해 주신다면?

A 안체(안상수체)는 “끝소리에는 첫소리를 다시 쓴다”는 훈민정음의 원리를 따릅니다. 그러면 글꼴이 네모틀을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안체는 굉장히 개념적 디자인입니다. 1985년 행사포스터에 안체를 처음 사용했는데, 누군가는 실험적이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도 컨셉 디자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 보면 그것이 새롭고 과감해서 '저걸 어떻게 타고 다녀?'라는 생각이 들지만, 몇 년 후에는 실제로 그러한 모델이 현실에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안체는 처음 1986년 과학동아 창간호에 제호로 채택되었고, 아래한글에도 탑재되면서 널리 보급될 수 있었습니다.

Q 네이버와 공동으로 한글꼴의 원형을 잇는 '마루 부리 글꼴'을 만들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A 새의 부리 같은 형태가 있는 것이 '부리 글꼴'(명조체)의 특징입니다. 붓의 속성이 부리를 만드는 거죠. 알파벳에서는 세리프(Serif)라고 하지요. 이른바 세리프가 있으면 명조체라고 하고, 없으면 고딕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명칭들은 일본 사람들이 쓰던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부리꼴'과 '민부리꼴'이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한글꼴의 대부분은 민부리꼴이에요. 예전에는 모니터의 해상도가 낮아 부리를 표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 되었는데 아

직까지도 부리꼴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네이버의 제안으로 부리꼴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 부리꼴 프로젝트의 이름을 '마루'라고 했습니다. 마루라는 말은 '정종(正宗)'이란 뜻인데, 가장 원조가 되는 것을 뜻하죠. '마루 부리 글꼴 프로젝트'에는 한글꼴의 정종을 잇겠다는 포부가 있습니다.

Q 글꼴 디자인에 있어서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A 글꼴은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뚝배기가 장맛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요즘에는 어떤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감정을 표현할지 많이 고민하잖아요? 글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결혼 청첩장을 만든다면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글꼴을 선택할지도 많이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글꼴을 통해 감정까지 표현할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컴퓨터 세상이 되어 한글꼴에 르네상스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요즘은 디지털 미디어가 대세가 되다보니 손글씨를 잘 안 쓰게 됩니다. '문화'라는 것은 글씨로 지어낸 집입니다. 글씨에는 정보적인 면도 있지만, 문예적인 힘, 예술적 상상력, 글쓴이의 품격과 같은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문화의 격을 이야기할 때에도 '글씨'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아무리 발전해도 손글씨를 통해 드러나는 개인의 미적 풍격까지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Q 영향을 받은 글꼴 디자이너가 있으신지요?

A 1960년대 부리꼴을 디자인하셨던 최정호 선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글꼴의 흐름은 최정호 이전과 이후로 나뉘 정도로 탁월한 글꼴입니다. 그분은 한글꼴을 현대적인 미감으로 바꾸어 놓은 분이죠. 마루 부리 글꼴도 최정호 글꼴의 미감을 잇는 새로운 글꼴을 개발하자는 취지의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최정호 선생의 글꼴 원도는 일본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요. 60~70년대에는 사진식자기로 글자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일본에서 사진식자기를 수입해야만 했죠. 그때 식자기에 한글꼴을 탑재하여 한국에 재수출하기 위해 최정호 선생의 글꼴 원도를

사갔습니다. 지금도 최정호 선생의 글꼴 원도들을 금고 속에 꽂고 싸두고 있어요.

Q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언론사님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사람은 언어를 통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기록하려면 글자가 필요하죠. 한글 창제 이전에는 한자 어휘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 우리 겨레말 특유의 감각이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파르스름하다'는 말을 한자로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겠어요. 조선 최고의 학자 임금이었던 정조(正祖)도 한자로 편지를 쓰다가 답답한 나머지 한글로 '뒤죽박죽'이라고 썼는데, '뒤죽박죽'이라는 우리말을 한자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만큼 우리말은 중국말과 다릅니다. 한자는 중국말을 표기하는데 적합한 글자이지요. 중국말은 600~700개 정도의 음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 구조가 단순한 일본말은 100개 정도의 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외국인도 쉽게 배우죠. 반면 우리말은 1,000개가 넘는 소리를 가지고 있대요. 가장 복잡한 음성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배우기 어렵죠.

중국 송나라 말에 운학 연구가 활발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음절을 36개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연구 결과를 들여왔지만, 우리말에 맞게 분류체계를 새로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글자로 만들어낸 거예요. 중국어는 소리마디를 둘로 갈랐지만, 한글은 자음, 모음, 받침 셋으로 갈라 만들어냈습니다. 받침이라는 것은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24자에 불과한 한글이 받침을 통해 세상의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죠. 글자의 새로운 우주를 만든 거예요.

세종은 단순히 글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수십만 년 동안 이 땅에 살아 온 한겨레의 말을 표기할 수 있는 '글자 표기체계(Writing System)'를 만든 겁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어머니말(모국어)의 구조 속에서 사고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글은 '위대한 디자인'입니다. 세종은 인류역사상 글자를 만들어낸 전무후무한 위대한 디자이너죠. 오는 한글날이 이런 의미를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은 인터뷰이의 허락 하에 '굵은 안상수체'로 작성되었습니다.

안종필 & 이용마

글 안형준(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동아투위는) 자유 언론의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기자·프로듀서·아나운서들의 모임입니다. 매월 17일에 월례회를 갖고 유인물(동아투위 소식)을 내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1975년 3월 17일 2백여 폭도들에 의해 신문사 방송국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로 그날 우리는 ‘동아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해 동아일보사로의 명예로운 원상회복과 자유 언론의 수호를 위해 투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동아투위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아일보사의 광고 해약사태 때 보여준 민주인사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해야 합니다. 그간 우리 투위 위원들에 대한 구속 연행 수색이 잦았고, 임수진 아나운서는 결혼을 하고서도 해외로 내보내지 않아 이산가족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략) 긴급조치는 국가 위기 등 긴급사태에만 발동되어야 하는 인위적인 것이지만, 언론자유는 하늘이 내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하면 미치고 맙니다. 사회도 마찬가지로 자유 언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썩고 미치고 맙니다. 그러므로 긴급조치 밑에서도 언론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는 것입니다”

40년 전인 1979년 2월 17일 서울형사지방법원 대법정. 안종필 동아투위 위원장이 수의(囚衣)를 입은 채 당당하게 진술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안종필 선생은 1975년 동아투위 사건으로 해직된 114명 가운데 가장 고참급 기자였습니다. 해직 2년 뒤, 후배들의 뜻을 받아들여 동

아투위 2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서슬 퍼런 유신독재와의 싸움에서, 맨 앞에 나선 것입니다.

이듬해인 1978년 10월 24일, 안종필 선생은 소위 ‘민권일지 사건’으로 두 번째로 구속됐습니다. ‘동아투위 소식’에는 제도권 언론이 외면한 125건의 ‘보도되지 않은 민주 인권사건 일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한 목사님과 민주인사들의 외침도 뼈곡하게 실렸습니다. 현직 기자들이 외면한 팩트를 해직된 기자들이 전하려 애쓴 것입니다. 긴급조치로 언론을 통제하던 독재정권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종필 선생 등 7명의 동아투위 위원들이 긴급조치 위반 명목으로 2년 안팎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투옥 중에 대통령 서거 뉴스를 접했지만, 간암에 걸렸다는 진단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는 출소 두 달 만인 1980년 2월 세상을 떠났고, 동아투위 위원들이 장례 기간 내내 식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안종필 선생을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외유내강의 성품을 지닌 분이셨죠. 호불호를 걸어서 드러내지 않으셨고, 말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취재기자 공채기수가 아닌, 경력 입사한 편집기자였습니다. 당시 동아일보 편집 기자는 다른 직장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보수를 받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동아투위의 대열에 함께 하셨습니다.’

동아투위의 기자와 프로듀서, 아나운서들은 1987년 6월 항쟁 직후, '안중필 자유언론상'을 제정했습니다. 독재정권의 보도지침을 폭로한 김주언 전 한국일보 기자가 제1회 수상자가 된 이래 30년 넘게 시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꺾일지언정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안중필 선생의 신념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그런데 검찰과 언론은 누구의 것입니까?
국민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중략)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것은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2017년 3월 11일. 암과 투병 중인 한 해직 기자가 광화문광장의 촛불 시민들에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2017년 '안중필 자유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했던 **故 이용마** 기자입니다. 같은 해 겨울 5년 9개월 만에 복직했지만, 휠체어를 탄 채 단 하루 만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지난 8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울음을 애써 참아내는 고인 아내의 표정이 더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사흘 뒤, 분당메모리얼파크 납골당에 유골함이 안치됐습니다. 고인의 아내와 두 아들이 힘없이 납골당을 빠져나가자 마

자, 중년의 한 남성이 유골함 앞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릴 수도 없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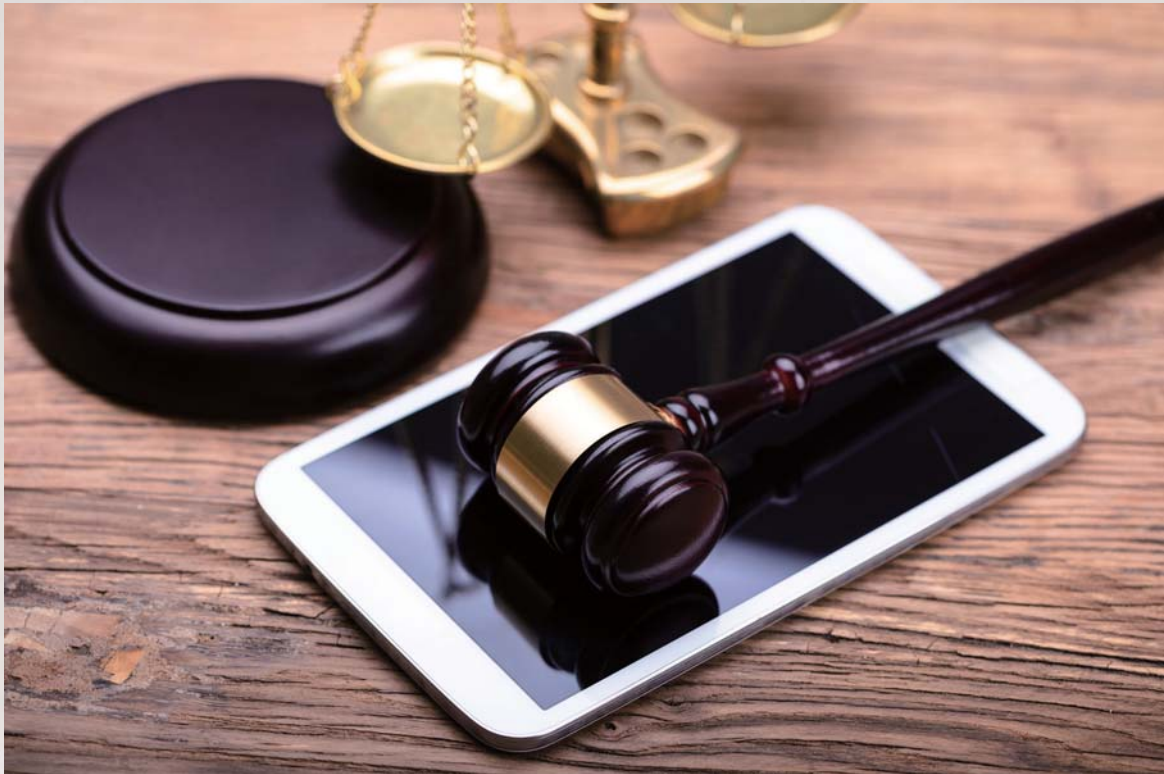
그의 친형이었습니다. 아우의 아내와 조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다는 뜻으로 이해됐습니다.

...45년째 해직의 길을 걷고 계신 동아투위 선배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요즘도 매달 17일 점심에 모여, 술잔을 부딪치며 변하지 않은 자유 언론 의지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조심스레 한 동아투위 위원께 '이용마 언론상' 제정에 대해 의견을 여쭙습니다. 긴장한 필자가 답을 얻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직과 투옥, 암 투병이라는 흐름이 안중필 선생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죠’

방송기자연합회는 이용마 기자의 죽음 앞에서 눈시울을 붉힌 수많은 이들의 뜻을 모아, '이용마 언론상'을 제정하려 합니다. 언론 탄압에 저항하고, 공정한 언론을 위해 노력한 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뿐 아니라 프로듀서와 작가, 아나운서와 데이터전문가 등 언론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과 조직이 대상입니다. 심사와 시상 절차 또한 한국피디연합회와 한국기자협회, 아나운서협회와 방송작가협회 등 여러 언론단체에 문호를 개방하려 합니다. '이용마 언론상'에 마음을 보태고 싶은 언론 종사자들의 문의전화기 채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피의사실공표를 두고 벌어진 최근 논란에 대한 생각

글 김주연(김주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피의사실공표죄란 경찰이나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기소 전에 공표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이다(형법 제126조). 기소도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기관이 수사 내용을 자유롭게 공표하면, 피의자는 사실상 언론과 여론의 재판에 받게 되어 인권이 침해되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공표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2008년부터 피의사실공표로 300건이 넘는 사건 접수가 있었는데, 단 한 건도 기소가 되지 않았으니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서 정한 기소 전에 수사 내용을 공개하는 예외 사유 규정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었고, 수사기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수사하고 기소 결정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법원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수사기관의 사용자로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는 경남기업 성완중 회장으로 부터 특별사면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수사 결과 발표에 반

발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 받았다. 법원은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점, 기소 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단정적인 표현은 피했어야 했는데도 피의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까지 나열함으로써 이를 듣는 언론이나 국민들이 피의사실을 저질렀다고 믿게 한 점' 등을 들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1심:창원지방법원 2018.8.23.선고 2015가단 79600 판결, 2심:창원지방법원 합의부 2018나59912 계류). 이후에도 한 경찰관 개인이 방송사 기자에게 전화 통화로 피의사실에 대해 말했고, 이것이 방송된 일이 있었는데, 피의자가 방송사 및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방송사에 대해서는 보도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내용의 공공성이 있다고 해도 공표의 절차와 형식 등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2,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수사기관이 정해진 공표 절차 및 관행을 따르지 않고, 개인적인 전화 통화를 통해 피의사실을 알린 경우였기 때문이다(1심:서울중앙지방법

원 2018.5.14.선고 2017가단5183770 판결,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2018.10.11.선고 2018나36945 판결, 3심:대법원 2019.2.14. 2018다285274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그렇지만 위의 두 판결과 다르게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서 국가의 배상책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다. 해당 판결 근거로서, 수사기관이 익명의 형식으로 공표했고, 피의사실 발표가 공식 절차를 거쳐 보도자료로 배포된 점 등이 고려됐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 피의자가 수갑을 차고 조사받는 모습을 언론기관이 촬영하도록 허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아, 이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28.선고 2017가단5047454 판결,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2019나40835 계류).

위 판례들을 통해, 피의사실공표의 허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무부가 2010년에 마련한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살피는 것도 위 기준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보준칙 제10조에서는 예외적으로 기소 전 공개를 허용하는 사유로서, 1)사건관계인의 명예 등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오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범죄의 급속한 확산 등이 우려되는 경우, 3)국민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4)범인 검거 등 정보제공을 위해 국민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를 들고 있다. 또 공보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하되, 사안이 복잡하거나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구두브리핑을 허용한다(공보준칙 11조, 12조 참조). 공표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대표적 내용으로 1)익명 보도가 원칙이지만,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2)사건관계인의 사생활, 사건관계인의 진술, 증언 내용, 증거의 내용 및 증거가치 등 증거관계 등에 대해서는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공보준칙 13조 내지 21조 참조).

그렇다면 공보준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불행히도 그렇지 않은 듯하다. 작년 사회적 공분을 부른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만 보더라도, 기소도 되기 전에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 발표를 통하여 쌍둥이 자매의 시험지와 답안이 적혀 있는 메모지,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간 포스트잇, 자매의 휴대폰 내 암기장 사본 등 증거물이 공개되었다. 이것들은 재판에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야만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물들이었다. 공판절

차를 시작하기도 전에 증거물들이 언론에 공개되어버린다면, 피고인은 유죄 심증을 이미 강하게 받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나 비판의 움직임이 강하지는 않았었다.

어쨌거나 피의사실공표를 둘러싼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법무부도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려고 했을 것이다(라고 믿고 싶다). 새로운 규정에는 수사내용 유포 검사에게 장관이 검찰 지시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피의사실공표죄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현실을 감안할 때, 피의사실 공개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새로운 규정에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새 규정 중에는 사건 관계인이 장관, 국회의원 등 공인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고 보도됐는데, 공인에 대한 피의사실 공개와 관련해 폐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감시기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향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이다. 대법원도 '피의자가 갖는 공적 인물로서의 특성과 그 업무 내지 활동과의 연관성 때문에 일반 범죄로서의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자의 실명 보도를 허용할 수 있다'(1심:광주지방법원 2005.9.28.선고 2004가단 45689, 2심:광주고등지방법원 2006.12.7.선고 2005나9561, 3심:대법원 2009.9.10.선고 2007다71, 확정)라고 판결한 적이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오히려 공인에 대해서 실명 보도는 허용하되, 내용의 공개 범위에 있어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관계인의 주장 및 진술·증언 내용, 진술·증언 거부 사실 및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 등이 기소 전에는 절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어쨌거나, 앞선 걱정일 수는 있겠으나, 내로남불이나 오비이락, 둘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한 시기상의 부적절함으로 인하여, 내용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는 뒤로 빠진 채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1년, 회식은 좀 줄었습니까?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1934 라이프스타일 조사)

글 남민희(대학내일20대연구소 책임에디터)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저녁 시간의 여유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이를 강제하기 위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근무환경이나 여가시간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직장인들은 진정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는 전국 만 19~34세 남녀 중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대부분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비교를 중점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업무 효율성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1년 전 대비 업무 효율성의 변화를 묻은 결과 변화가 없다는 비율이 77.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업무 효율성이 증가했다는 비율(15.8%)이 떨어졌다는 비율(6.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1년 전 대비 직장 내 변화한 항목

■ 증가했다(Top2) ■ 중도응답 ■ 감소했다(Bottom2)

(Base)	전체 (n=600)		직장규모별	
	증가했다(Top2)	중도응답	대기업 (100)	중소·중견 기업 (500)
보고 체계 및 단계	12.7	74.8	12.5	12.5
평균 3.01			18.0	11.6
			중도 63.0	77.2
			감소 19.0	11.2
휴식 빈도 및 휴식시간	11.5	71.7	16.8	16.8
평균 2.91			11.0	11.6
			중도 60.0	74.0
			감소 29.0	14.4
구성원과의 대화시간	10.8	72.7	16.5	16.5
평균 2.93			14.0	10.2
			중도 62.0	74.8
			감소 24.0	15.0
회의 빈도 및 회의시간	10.3	69.8	19.8	19.8
평균 2.88			16.0	9.2
			중도 54.0	73.0
			감소 30.0	17.8
회식 빈도 및 회식시간	8.3	62.3	29.3	29.3
평균 2.71			14.0	7.2
			중도 41.0	66.6
			감소 45.0	26.2

*출처 : 대학내일20대연구소,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1934 라이프스타일 조사>, 2019

한,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인 대기업 종사자의 업무효율성이 증가했다는 응답(31.0%)은 중소·중견기업(12.8%)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 52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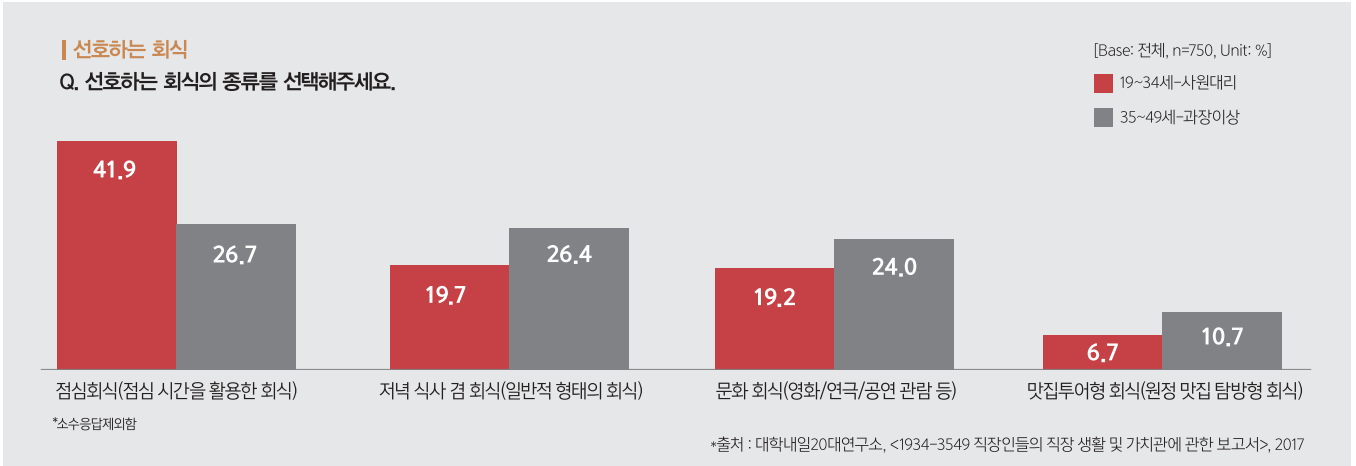
1년 전에 비해 회의 빈도나 시간이 줄었고, 구성원 간 잡담시간 또한 감소했으며, 초과 근무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회식도 적어졌습니다. 회식 빈도나 횟수도 대기업(45.0%)이 중소·중견기업(26.2%)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식은 직장 내에서 세대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19~34세 ‘사원·대리 그룹’과 35~49세 ‘과장 이상 그룹’의 세대 차이에 대한 조사에서 ‘사원·대리 그룹’의 41.9%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진행되는 점심 회식을 원했고, 저녁 식사 겸 회식(일반적 형태의 회식)을 원하는 비율은 19.7%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 이상 그룹’에서는 점심 회식(26.7%)과 저녁 회식(26.4%)을 선호하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MZ세대(밀레니엄세대와 Z세대를 합친 말) 직장인들이 저녁 회식을 얼마나 피하고 싶어 하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유니콘이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자리 잡으면서 MZ세대 직장인에게 말로만 듣던 ‘저녁이 있는 삶’이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어떤 활동을 하며 이 여유를 누리까요? 퇴근 후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으로 MZ세대 직장인 절반(49.3%)이 휴식을, 2위로는 집안일(34.2%)을 꼽았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도 다니고, 배우고 싶은 수업을 들으러 공방에도 갈 줄 알았는데 조금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더 확실히 자리 잡는다면 점차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MZ세대 직장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 1년 전에 비해 다양한 취미활동 시간이 늘어난 것(28.2%)



으로 확인되었는데, 대기업 종사자는 그 증가 비율이 2명 중 1명꼴인 48.0%나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관리에 투자하는 시간(27.8%)도 증가했고, 친구나 연인과 보내는 시간(27.2%)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덕분인지 MZ세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홈족(집 안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샐러던트(퇴근 이후의 시간을 활용해 자기계발을 열심히 하는 직장인들)’인데요, 특히 ‘홈족’은 여성(66.3%)과 30대(64.0%)의 긍정응답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집에서의 취미생활이나 공부와 관련된 비즈니스의 시장도 왕성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주 52시간 근무제 덕분에 1년 전과 비교하여 근무시간은 줄고 업무효율성은 늘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 중입니다.

또한, 1년 후 전망을 살폈을 때 MZ세대 직장인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퇴근 후의 삶이 나아질 것(41.5%)이라고 말했고, 우리 사회의 생산성도 높아질 것(38.0%)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MZ세대 직장인들이 근무시간 관리 제도가 있음에도 사용이 불편한 이유는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는 자신의 과거 시절을 들먹이는, 일명 ‘꼰대’들을 저격하는 “나 때는 말이야~”를 변형한 신조어입니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건강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라떼는 말이야~”라며 눈치 주는 일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종업원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점차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직장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1년 전 대비 개인 생활 변화한 항목

■ 증가했다(Top2) ■ 중도응답 ■ 감소했다(Bottom2)

(Base)	전체 (n=600)			직장규모별	
	대기업 (100)	중소·중견 기업 (500)	평균	대기업	중소·중견 기업
다양한 취미 활동	28.2	60.8	3.19	48.0	24.2
자기 관리에 투자하는 시간	27.8	64.8	3.23	40.0	25.4
친구/연인과 보내는 시간	27.2	63.0	3.18	38.0	25.0
가족과의 시간	27.0	60.7	3.15	47.0	23.0
비정기적 수입 (N잡, 아르바이트, 재테크 등)	16.2	66.5	2.95	21.0	15.2
월 평균 수입(월급)	13.8	71.7	2.96	20.0	12.6

*출처 : 대학내일20대연구소,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1934 라이프스타일 조사>, 2019

| 향후 주 52시간제로 인한 전망

■ 긍정응답(Top2, 그렇다) ■ 중도응답 ■ 부정응답(Bottom2, 아니다)

(Base)	전체 (n=600)			직장규모별	
	대기업 (100)	중소·중견 기업 (500)	평균	대기업	중소·중견 기업
주 52시간 근무제로 1년 후, 나의 퇴근 후 삶이 나아질 것이다	41.5	42.3	3.30	56.0	38.6
주 52시간 근무제로 1년 후, 나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37.5	47.0	3.25	44.0	47.6
주 52시간 근무제로 1년 후, 우리 사회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38.0	42.7	3.22	42.0	37.2

*출처 : 대학내일20대연구소,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1934 라이프스타일 조사>, 2019

하늘을 마시고 능금처럼 익어가는 가을날

글 정호구(충북대학교 교수, 문학평론가)

하늘 - 박두진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 여릿
머얼리서 온다.

하늘은, 머얼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 몸이 안긴다.

가슴으로,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따거운 별,
초가을 햇볕으로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마시는 하늘에
내가 익는다.
능금처럼 내 마음이 익는다.

- <해>(청만사, 1949)에서

인간사의 얇고 불안정한 역사성과 달리 오래된 자연사의 질서는 믿음직스럽고, 안정돼 있습니다. 이런 자연사의 질서가 부재한다면 인간사의 격한 파고 속에서 흔들리며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삶이 안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사의 질서 가운데서도 특히 사계절의 운행은 언제나 반듯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봄 다음엔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엔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엔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이런 계절이 주는 예측 가능성과 그 신뢰감은 얼마나 평안하고 고마운 것인지요.

이달엔 젊은 날의 양희은 씨와 서유석 씨가 함께 노래로 불러서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박두진(1916~1998) 시인의 문제작인 <하늘>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진 시인도, 양희은 씨와 서유석 씨도, 그리고 함께 읽어볼 작품인 <하늘>도 탁하고 독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데 적잖은 공헌을 한 문화적 기표입니다. 문화의 수준이 정화의 정도에 비례한다면 우리들의 삶과 세계가 정화되는 만큼 그 작품의 문화적 높이를 가늠해도 될 것입니다.

가을은 뭐니 뭐니 해도 하늘과 햇살과 곡식들로부터 옵니다. 하늘은 점점 맑고 높아지며, 햇살은 점점 투명하고 째깍해지고, 곡식들은 익으며 안쪽으로 단단해지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분자 활동이 빠른 데서 느린 데로, 생명 에너지의 기운이 생장(生長)의 방향에서 수장(收藏)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현상이지만, 그런 과학적 사실의 산문성과 달리 가을 풍경은 우리를 절제의 아름다움과 내면화의 깊이로 안내하는 철학적이면서 시적인 풍경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아주 먼 곳에서 다가오는 호수처럼 푸르른 하늘을 발견하고 그를 맞이하며 그 품에 온전히 안깁니다. 그는 이런 놀라운 일체감 속에서 하늘의 향기로운 호흡이 자신의 가슴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향기와 호흡에 취한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이런 시인은 하늘을 영접하듯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따가운 초가을의 햇볕으로 자신의 목을 씻는 '의식'을 치르고, 그 하늘을 가장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두고 '하늘을 마셨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느낀 갈증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는 자신에게 닥친 갈증을 '하늘을 마시는 일'로 해결하였습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하늘을 마시는 시인! 박두진 시인이 갈증을 해결하였다고 전해주는 이 방법과 형상이야말로 너무나도 순정하고 간절하며 우주적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가을 하늘을 마시고 나니 그 자신이 가을 능금처럼 익어가더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자신을 무르익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들이 참다

운 무르익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을 언제나 난처하게 만드는 그 질긴 예고의 나르시시즘과 프라이드에 시달리는 인간들의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설익은 떡처럼 푸석거리고, 덜 절여진 배추처럼 푸들거리고, 잘못 다룬 생선처럼 비릿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인이 푸르고 드높은 가을 하늘을 연거푸 마시고 마음이 능금처럼 곱고 향기롭게 익어간 경험을 전해준 부분은 각별한 감흥을 불러일으킵니다. 더군다나 초가을 햇볕으로 목을 씻고 가을하늘을 마셨다는 그 지극한 가을 하늘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전율 섞인 감동을 자아냅니다.

이제 가을 하늘을 볼 계절입니다. 어떻게든 가을 하늘을 만나면서 지상의 인간들과 인간 세상도 맑고 환하게 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된 만큼 우리들의 살림살이도 가을 열매처럼 안쪽으로 단단해지며 둥글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옥 감독님(사진제공 : 출판사 마음산책)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 박남옥

글 임순례(영화감독)

감독님이 돌아가신 후로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국 영화 100년 역사에 있어 최초의 여성 감독이신 박남옥 감독님을 처음 알게 된 건 1997년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복원 상영된 <미망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였다. 영화도 영화지만, 고무신과 한복 차림에 포대기로 아이를 둘러업은 감독님의 현장 사진은 인상적이다 못해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몇 년 후에 <아름다운 생존>이라는 제목으로 초기 여성 영화인들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작업이 추진되었고 내가 연출을 맡게 되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민 생활 중이셨던 박남옥 감독님이 마침 한국 방문 중이셨던 터라 직접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당시 70대 후반의 나이였지만 감독님은 기억력은 정교하셨고 영화에 대한 열정은 전혀 식지 않으셨다.

학창 시절, 육상과 투포환 선수로도 활동하신 감독님은 체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셨고 성격이 매우 호방하셔서 팔순이 다가오는 나이에도 줄담배를 피우시던 기억이 생생하다. 젊은 시절 영화인 동료들과 어울려 충무로에서 술잔을 나누던 추억담을 들려주시기도 했는데 유머 감각도 상당히 풍부하셨으며 말씀을 아주 재미나게 하시는 화술을 가지고 계셨다.

초기 여성 감독 중에 박남옥 감독님의 절친이기도 한 홍은원 감독님은 체격도 여리여리하시고 매우 여성적인 외모를 가지고 계셨다. 아마도 현역 시절에 두 분이 비교를 많이 당하셨던 듯한데, 박 감독님은 인터뷰 자리에서 처음 보는 내게 “너는 나 같은 머슴과야”하며 매우 이

빠해 주셨다. 감독님은 영화배우 김신재를 ‘짝사랑’(감독님의 표현)하셔서 그 선망의 힘으로 집안의 온갖 반대를 물리치고 영화계에 입문했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일의 출발은 강한 ‘선망’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을 주셨다. 배우 김신재와의 인연은 영화계 일을 하시면서 더욱 돈독해졌고 나중에 미국에서도 종종 교류를 이어가셨다고 한다.

<미망인>, 단 한 편의 영화를 만들고 나서 차기작을 만들 수 없었고 이혼 후 혼자 양육해야 했던 어린 딸을 키우기 위해 영화계를 떠나 당시 형부가 운영하던 동아출판사의 영업·총무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퇴근 후에는 늘 총무로 달려가 가난한 영화인들 술 사주기에 바쁘셨던 듯하다. 영화만큼이나 감독님의 온 마음을 받은 존재는 외동딸이었다. 70년대 중반, 딸이 미국 유학을 떠나자 영화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미련을 뒤로하고 감독님도 뒤이어 미국이민 길에 오르셨다.

국내에서의 첫 인터뷰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자주 편지를 주셔서 소식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일제 강점기 때 교육을 받으신 감독님은 편지를 세로로 쓰시는 데다 한자를 많이 섞어 쓰시고 한글조차도 흘림체로 쓰셨기 때문에 감독님 편지는 해독하는 데 시간이 매우 많이 걸렸다. 감독님과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으며 미국 출장길에 찾아뵙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감독님 사시는 아파트로 가 뵈었다. 베란다에는 온갖 화초와 꽃들이 만발했다. 감독님은 주변 분들과 교류하시기보다는 혼자 조용한 시간을 즐기시는 듯 보였고 예쁜 꽃을 가꾸는 것이 유일한 취미인 듯했다. 한국 신문을 두세 개 받아보셨는데 국내 사정에도 환하시고 특히 영화계 사정은 나보다도 더 훤히 알고 계셔서 놀랐던 기억이 난다. 나를 비롯해 후배 여성영화감독들의 기사를 스크랩해 두셨고 앨범에 빼곡히 자리 잡은 화려했던 시절의 사진(신성일, 엄앵란, 최은희, 신상옥, 김신재, 도시로 미후네 등과 찍은)을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실 때는 몇십 년의 세월의 간극을 잊으신 듯 행복해 보이셨다.

두 번째 볼 때는 이미 요양원에 계셨고 상당히 쇠약해지셨지만, 그곳에서도 감독님의 관심은 오로지 ‘영화’와 혼자 남게 될

‘딸’뿐이었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히스패닉계라 감독님과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요양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미술 프로그램이나 같이 노래하는 등등)에도 도통 관심이 없어 보이셔서 많이 안타까웠지만 아마도 감독님은 오로지 영화 이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이 평생을 사셨기에 그러한 선택이 이해되기도 했다. 영화와 딸만이 감독님 삶의 단 두 가지 이유였던 것이다.

1950년대 중반, 여성 감독에게 연출을 선뜻 제안하는 제작자가 없었기에 <미망인>의 제작비를 경제력이 있었던 손위 언니의 도움을 받아 자체 조달하셨다. 어린 딸을 맡길 곳이 없어서 포대기에 업고 현장에 나와야 했고, 제작비를 아끼려고 스태프들에게는 직접 밥을 해 먹이기도 했다. 아침부터 녹음실에 여자가 드나들면 재수 없다는 비아냥을 견디며 후반 작업을 해야 했고 부산, 대구 등 전국을 직접 다니며 배급까지 해야 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선뜻 그 어려움을 다 체감하기는 어려웠다.

‘최초’라는 타이틀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신 감독님의 용기 있는 시도가 있었기에 현재의 나를 비롯해 오늘날 수많은 여성 감독들이 존재하는 것이리라. 살아계시는 내내 두 번째 영화를 꿈꾸셨던 감독님을 늘 존경의 마음으로 기억하며 이제는 더 이상 받아볼 수가 없는 해독 난망이었던 달필 흘림의 감독님 편지가 그립다.



영화 <미망인> 중



‘스노든’

글 윤성은(영화평론가)

지난 9월 16일, 미국 정부는 전직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날 전 세계 20여 개국에 출간될(현재는 출간된) 스노든의 회고록, ‘영원한 기록’(Permanent Record)의 사전 열람 기회를 정부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현역 시절, 국가안보국(NSA), 중앙정보국(CIA)과 맺은 비공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명목이다. 이에 스노든 측은 ‘영원한 기록’에는 이전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에드워드 스노든. 2013년 당시 만 스물아홉 살이었던 그는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큼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한다. 미국 정부가 테러 방이라는 명분으로 민간인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직 CIA와 NSA 정보분석원이었던 그는 직접 비밀리에 접성한 매체에 자신의 말을 뒷받침해줄 국가 기밀문서를 함께 제시한다. '시티즌 포'(2015, 감독 로라 포이트라스)는 가디언지 기자 '글렌 그린왈드'와 다큐멘터리 감독 '로라 포이트라스'의 만남부터 인터뷰 송출까지 긴박했던 시간을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다. 홍콩의 한 호텔에서 이루어진 스노든의 인터뷰 내용은 이미 몇 년 전 매스 미디어를 뜨겁게 달궜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레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극비리에 진행된 이들의 접선은 다큐멘터리임에도 범죄 스파이영화처럼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스노든'(2017, 감독 올리버 스톤)은 '시티즌 포'가 개봉한 후에 만들어진 극영화로, 스노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집중한 작품이다. 열혈 애국 청년이었던 스노든은 특수부대에 자원입대 하지만 훈련 도중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의가사제대 한다. 이후 그는 CIA에서 IT 보안 담당자로 일하게 되는데, 국가 안보 시스템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실태를 낱알이 목도하고 갈등에 빠진다. 9.11 테러로 인한 아버지 세대의 트라우마는 미 당국이 무작위로 국민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면죄부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 CIA의 상관인 '콜빈 오브라이언'(리스 이판)은 시대의 불안과 공포를 앞세우며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말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스노든은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고, 미국을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생각했던 순수한 믿음도 갈수록 흔들리게 된다.

영화에서 그의 결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CIA에 들어갈 때쯤 만나게 된 연인, '린지'(쉐일린 우들리)라고 할 수 있다. 백악관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보며 불편해하는 스노든과 달리, 린지는 애국자일수록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함께 성장해 간다. 일본, 하와이 등으로 옮겨 다니며 린지와 스노든이 겪게 되는 관계의 변화 또한 스노든이 일과 가치관 사이의 충돌 속에서 자기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스노든이 하는 일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면서도 린지는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응원해 준다. 2년 전, 그들은 러시아에서 비밀리에 결혼했고, 현재는 프랑스로 망명을 원하고 있다.



한편, '스노든'은 글렌(재커리 퀸토)과 로라(멜리사 레오)가 스노든(조셉 고든 레빗)을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해 플래시 백으로 스노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준다. 여기에는 언론인을 스노든의 조력자 이상으로, 폭로전을 실제로 가능케 한 주체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영화에는 백악관이 기밀문서 유출에 대해 알고 압박해 오는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기사를 내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디언지 내부의 고민도 드러나 있다. 글렌을 비롯한 '이완 맥어스킬'(톰 윌킨슨), '재닛 깁슨'(조엘리 리차드슨) 등은 자신의 기자 생명을 걸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치부를 드러낸다. 2013년 6월 5일 가디언지의 보도는 스노든의 용기와 신념, 언론인들의 직업 정신이 만들어낸 역사의 빛나는 한 발자국이다. 스노든 폭로 이후, 미국에서는 2015년 6월 2일부터 '프리덤 액트' 법이 발효되어 NSA의 정보 수집에 제한을 두게 되었다. 자신의 폭로 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던 스노든에게 기쁜 소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스노든이라는 이름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희미해져 가고 있다. 이제 그의 책을 통해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 안보와 자유, 언론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떨까.

민주주의의 쇠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권력과 매체의 관계에서다. 투표에서 당선된 국가의 공직자들은 저널리즘을 부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이는 진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전면적 공격과 부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진실은 거짓과 교묘하게 섞이고 있으며, 기술은 이 부분을 극대화시켜 전 세계적 차원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에드워드 스노든, '영원한 기록' 서문 중에서)

위원회 뉴스

강원지역 언론사 대표 간담회 개최



이석형 위원장은 9월 19일 강원 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강원 지역 언론 현황과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적

합한 언론피해구제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강원중재부 김현미 중재부장, 이광식, 김학성, 최영재, 이용재 중재위원과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대표이사, 박진오 강원일보 대표이사, 하근찬 강원CBS 본부장, 허인구 G1 강원민방 대표이사, 김혜례 KBS춘천방송총국 총국장, 김동섭 춘천MBC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참석

위원회(이석형 위원장) 조준원 조정부부장은 9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에 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조 조정부부장은 ‘가짜뉴스를 심의 및 행정제재 대상이 아닌 피해 구제를 기준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을 언론으로 포섭해 언론중재 범위 내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국 최고행정법원 연수단 방문



이석형 위원장은 9월 24일 위원회를 방문한 빠라삿삭 밀랍(Mr. Prasitsak Meelarp) 태국 최고행정법원 부원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양국의 언론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일정 중 위원회는 태국 최고행정법원 연수단 23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언론분쟁해결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을 통해 한국의 언론분쟁해결 현황과 사례를 소개했다. 연수단은 언론분쟁과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계간 <언론중재> 가을호 발간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9월 30일 계간지 「언론중재, 가을호(통권 152호)를 발간했다. <Focus on Media> 섹션의 대주제는 ‘최근 범죄 관련 보도와 인격권 문제: 3가지 입장과 3가지 쟁점’으로, 장운미 위원(서울제6중재부, 법무법인 원앤원 변호사)의 「미투 운동 이후의 언론계 성인지 감수성 고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범죄 보도」 등의 기고글이 수록되었다.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정보자료실에서 전자책(E-BOOK) 및 PDF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위원 동정

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시정권고소위원회 위원 선출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운영위원회 위원과 시정권고소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선출하였다. 임기는 2019년 9월 17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이다.

구분	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운영위원회 위원(9명)	서울제4중재부	이석형	(전)서울고등법원 판사 (전)감사원 감사위원
	대전중재부	송중문	(전)중앙일보 상무이사
	서울제3중재부	이동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제6중재부	장운미	법무법인 원앤원 변호사
	부산중재부	장병운	(전)국제신문 논설고문
	대구중재부	권장원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광주중재부	서애련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
	충북중재부	이광형	법무법인 휘담 변호사
	제주중재부	문운택	제주국제대 스마트미디어학과 교수

구분	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시정권고소위원회 위원(7명)	서울제4중재부	이석형	(전)서울고등법원 판사 (전)감사원 감사위원
	서울제1중재부	황병선	(전)서울신문 편집국장, 경영본부장
	서울제1중재부	권정숙	(전)한겨레신문사 방송미디어부장
	서울제2중재부	이우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제5중재부	김보람	법률사무소 해은 대표변호사
	서울제7중재부	강소영	서울디지털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서울제8중재부	송충식	(전)경향신문 논설주간

이재진 위원, 한국언론학회 <로컬 플랫폼, 플랫폼의 미래 세미나> 개최

이재진 위원(서울제7중재부,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회장)은 9월 26일 HJ비즈니스센터에서 '로컬 플랫폼, 플랫폼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로컬 플랫폼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에 관해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오동현 위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위촉

오동현 위원(경기중재부, 법무법인 린 변호사)은 지난 8월 2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지방자치 총괄 조정기구로, 정책자문위원은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자치 제도개선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안차수 위원,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진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회

안차수 위원(경남중재부, 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은 9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문법 개악 10년, 신문법 개정을 말한다:신문에 대한 신뢰 회복과 올바른 진흥을 위한 신문법 개정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국언론정보학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의 사회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편집의 자유와 독립,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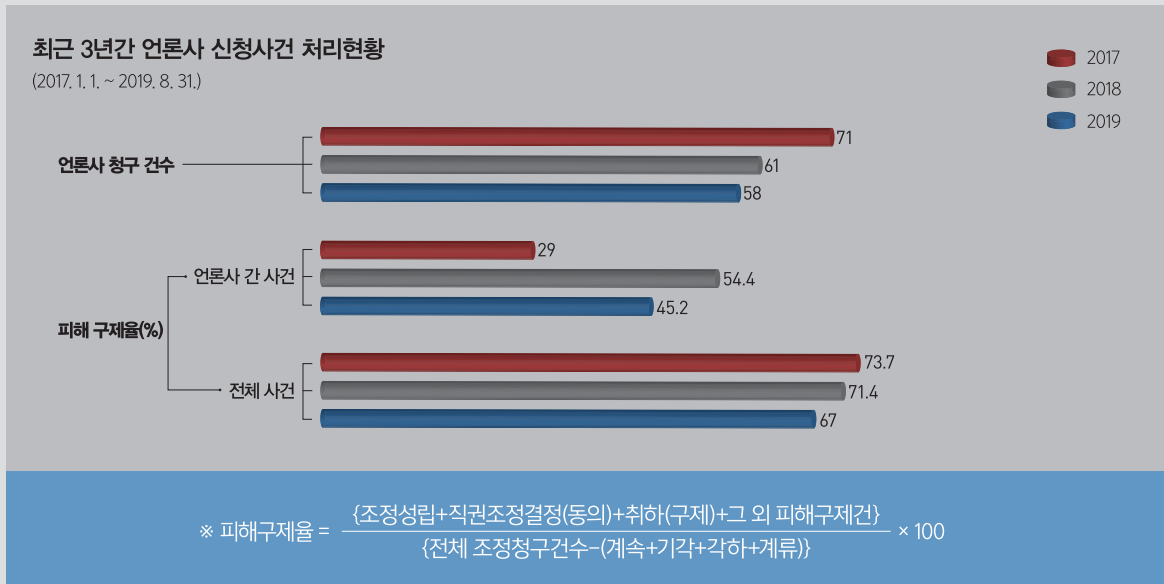
이노신 위원, <홍성군 경제발전 전략 발굴 세미나> 참석

이노신 위원(대전중재부, 호서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은 9월 5일 홍성문화원 대강당에서 충남경제정책연구원이 '홍성군 경제발전 전략 발굴'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위원은 "홍성은 행정구역상 충남의 중심으로 인구 유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인재양성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언론중재
언론사 간 조정신청사건의 결과는?**

언론사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언론사도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됐다면 그 스스로 조정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언론사가 타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사건을 살펴보면 위원회 전체 사건에 비해 분쟁이 해결되는 비율(피해구제율)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위원회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언론분쟁양상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디어와 인격권> 제5권 제2호 논문 공모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5권 제2호에 수록할 연구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공모분야

연구논문 :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전반(언론법제 관련 판례 평석 포함)

제출마감

연구논문 제출마감 : 2019년 11월 7일(목)까지

응모자격

1.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2. 관련분야의 전문가자격증 소지자 및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논문접수

이메일 접수(journal@pac.or.kr)

- ※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하시거나 연구팀(02-397-3042)으로 문의바랍니다.
- ※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현재 등재후보학술지입니다.

